

## 제 6 강 : 세상을 품는 지도자

### - 성령 받은 사람들

참된 지도자는 세상을 품는 지도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만나 변화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사람을 섬기러 오신 분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눈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이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스테반은 순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 1. 서로 사랑하라.

1.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2.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3.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일4:7-12) "사랑하는 자들아 !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

루느니라 "

4. 최대의 사랑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행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하고 "

## 2. 성령을 받으라.

1.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행1:4-5)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2.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전도합니다.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3.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롬5:1-5)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

4.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전12:4-11)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主)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

5. 성령의 능력은 하나되게 합니다.

(엡4:1-6)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

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 3. 가서 제자 삼으라.

1. 예수님은 친히 열 두 명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마10:1-4)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16:15-19)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1:4-5)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4.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입니다.

(마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하시니라 "

### 4.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력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어떤 꿈을 갖느냐가 어떤 지도자를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지도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멀리 보는 새가 멀리 갑니다. 보는 만큼 가고 들리는 만큼 행동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전략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2. 사랑의 지도력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력입니다.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며,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력입니다.  
사랑 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3. 성령의 지도력을 사모하십시오.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은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지도력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릅니다.

(엡4:1-6)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